

Beaverton Four Square

April 19, 2020

When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세계가 뒤집어 졌을 때

Prologue/Message #1: “ 멍하고 혼란하다”

누가복음Text: Luke 24:13-35

사도행전Acts 17:6 (ESV)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7.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8.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These men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have come  
here also, 7 and Jason has received them, and they are all acting  
against the decrees of Caesar, saying that there is another king,  
Jesus." 8 And the people and the city authorities were disturbed  
when they heard these things.

누가복음Luke 24:13-35

마침 그 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삼십 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14.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15.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16.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7.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  
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18.그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19.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20.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21.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는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22.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4.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2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26.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7.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 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28. 그 두 길손은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29.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30.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31.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32.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33.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34.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35.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13 That very day two of them were going to a village named Emmaus, about seven miles from Jerusalem, 14 and they were talking with each other about all these things that had happened. 15 While they were talking and discussing together, Jesus himself drew near and went with them. 16 But their eyes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17 And he said to them, "What is this conversation that you are holding with each other as you walk?" And they stood still, looking sad. 18 Then one of them, named Cleopas, answered him, "Are you the only visitor to Jerusalem who does not know the things that have happened there in these days?" 19 And he said to them, "What things?" And they said to him, "Concerning Jesus of Nazareth, a man who was a prophet mighty in deed and word before God and all the people, 20 and how our chief priests and rulers delivered him up to be condemned to death, and crucified him. 21 But we had hoped that he was the one to redeem Israel. Yes, and besides all this, it is now the third day since these things happened. 22 Moreover, some women of our company amazed us. They were at the tomb early in the morning, 23 and when they did not find his body, they came back saying that they had even seen a vision of angels, who said that he was alive. 24 Some of those who were with us went to the tomb and found it just as the women had said, but him they did not see." 25 And he said to them, "O foolish ones,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26 Was it not necessary that the Christ should suffer these things and enter into his glory?" 27 And beginning with Moses and all the Prophets, he interpreted to them in all the Scriptures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28 So they drew near to the village to which they were going. He acted as if he were going farther, 29 but they urged him strongly, saying, "Stay with us, for it is toward evening and the day is now far spent." So he went in to stay with them. 30 When he was at table with them, he took the bread and blessed and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31 And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cognized him. And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32 They said to each other, "Did not our hearts burn within us while he talked to us on the road, while he opened to us the Scriptures?" 33 And they rose that same hour and returned to Jerusalem. And they found the eleven and those who were with them gathered together, 34 saying, "The Lord has risen indeed, and has appeared to Simon!" 35 Then they told what had happened on the road, and how he was known to them in the breaking of the bread.

#### **누가복음 Luke 24: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But we had hoped that he was the one to redeem Israel.

#### **질문:**

- 여러분의 기분이 거꾸로 느껴지더라도, 인생을 바르게 뒤집어 놓으려고 바꾸려고 하십니까?
- 인생이 거꾸로 느껴지더라도 인생을 바르게 뒤집어 세우시겠습니까?
- 이 갇힌 배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 께서 겪으신 것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지금 ... 반영 할 때가 왔읍니다. ... 주님이 아직 완료하시지 않으셨습니다.